

曹洞五位의 전승에 대한 一然과 淨訥의 대응 고찰*

김호귀**

I. 서언

II. 普覺一然과 『重編曹洞五位』

1. 「寶鏡三昧」 및 「五位顯訣」의 작자
2. 「逐位頌」 작자의 문제
3. 第四位の 명칭 문제

III. 雲淙淨訥의 『寶鏡三昧原宗辨謬說』

1. 『寶鏡三昧原宗辨謬說』의 내용
2. 淨訥의 관점

IV. 결론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kimhogui@hanmail.net

요약문

오위사상은 중국 조동종의 근본적인 교의이다. 그런데 오위사상은 동산양개와 조산본적에 의한 조동종의 형성 이전에 이미 석두희천의 『참동계』 등에서 전승된 사상적인 원류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동산이 자신의 『보경삼매』 및 『오위현결』을 통하여 동산오위라고 불리는 편정오위 기타 공훈오위를 형성하였고, 이후에 거기에 대하여 그의 제자 조산본적이 계승을 붙임으로써 본격적으로 널리 전승되었다. 동산양개의 두 가지 오위 곧 편정오위와 공훈오위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동산 자신의 悟證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으로서 본종의 측면을 보여주고, 후자의 경우는 그것을 체득하는 남자의 수행이 진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오위사상은 고려시대 초기에 고려에 전승되어 면면히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 후기에 일연에 의하여 『중편조동오위』가 편찬되었다. 여기에서 일연은 원시조동종의 교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부터 논란의 문제였던 『보경삼매』 및 『오위현결』의 작자를 동산으로 확정하였고, 동산오위에 대한 『축위송』의 작자를 동산양개가 아닌 조산본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오위 가운데 제사위의 명칭을 원시조동종의 입장에 부합되게 편중지로 확정하였다.

한편 명대 말기의 정눌은 『보경삼매원종변류설』을 저술하여 송대 이후부터 널리 전개된 원시조동종의 변용된 교의를 비롯하여 임제종까지 파급되어 전승된 오위의 입장을 당시의 시대적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정눌은 몇 가지 점에서 일연과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는데, 곧 『축위송』의 저자에 대한 문제와 제사위의 명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법혜홍의 견해에 대한 문제 기타가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정눌이 『보경삼매원종변류설』에서 주장한 내용을 아홉 가지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가 보이는 일연과 정눌의 견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가운데는 오위에서 제사위의 명칭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자 각각하고 있던 시대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다 구체적인 아홉 가지의 주장은 정눌의 특수한 오위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중편조동오위, 보경삼매원종변류설, 보경삼매, 일연, 정눌

I. 서언

고려 초기에 전승된 중국 조동종의 교의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普覺一然(1206-1289)에 의하여 오위사상에 대한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迦智山派의 일연은 『重編曹洞五位』(『重修曹洞五位』)를 편찬함으로써 일찍이 중국의 조동종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오위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나아가서 오위의 전승에 관한 몇 가지 異見에 대하여 조동종의 정통성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제명에 보이는 ‘重編’ 내지 ‘重修’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기존에 송대에서 편찬되었던 오위설에 대한 문헌을 집대성하여 재편했다는 의의와 함께 한국의 선종사에서 오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문헌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¹⁾

한편 明代 조동종의 雲淙淨訥(1610-1673)은 『寶鏡三昧原宗辨謬說』을 저술하여 『보경삼매』와 오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속이는 말[辯謬]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여 배척하고 있다. 제명에 드러나 있듯이 ‘보경삼매 원래의 종지에 대하여 잘못된 해설을 판별한다’는 의미로서 기존의 諸說에 대하여 정놀이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시대와 지역이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양자의 견해가 『寶鏡三昧』와 그로부터 연원된 五位說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여기에서 양자가 보여준 몇 가지의 주장이 운종정놀이보다 약간 이후의 시대에 해당하는 行策(1626-1682)의 『寶鏡三昧本義』에서는 각각 선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1) 이 『重編曹洞五位』와 관련된 연구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종만, 「일연 조동오위연구」, 『한국불교학』 23, 한국불교학회, 1997.12 ; 민영규,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중인서」, 『학림』 6, 1984.3. 연세대학교사학연구회 ; 김호규, 「중편조동오위소고」, 『백련불교논집』 10, 2000.12.

본고에서는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보이는 일연과 정눌이라는 두 선자의 저술을 통해서 각각 주장했던 관점이 전자의 경우 원시조동종의 입장을 주창했던 것이었음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 당시 선종계에서 널리 주창되고 있었던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상호 대조적인 것이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비교의 논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비교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수용되고 전개된 오위사상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보경삼매』에 대하여 작자의 문체와 본문의 사구에 대한 해석 내지 이해의 문제 등 몇 가지 견해 가운데 그 전승의 문제를 비롯하여, 『보경삼매』로부터 연유된 오위에 대하여 선종사에서 형성되고 주장되어 온 관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연의 저술은 고려를 통해서 전승되었고, 이후에 일본으로 전승되어가는 텍스트가 되었으며, 정눌의 저술은 중국에 전승된 것을 바탕으로 작자의 견해가 비교적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중국에서 전승되어 온 『보경삼매』 및 그로부터 연유된 오위관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보여준다.

II. 普覺一然과 『重編曹洞五位』

조동의 오위에 관한 문헌으로 一然(晦然)의 『중편조동오위』 3권이 전한다. 여기에서 일연은 기존에 편찬된 조동오위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重編한 이유에 대하여 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洞山良价 시대의 가르침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지러워지고 단절될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

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처음에 曹山本寂이 갖가지 주석을 붙이고, 그의 제자인 曹山慧霞가 그것을 편집하였으며, 다시 光輝가 그것을 해석하여 세상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그 辭語가 어려웠기 때문에 普法禪師 老謙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宋本을 얻어 重刊하고, 다시 거기에 曹洞의 遺文과 疎山 및 末山の 「語訣」을 합하여 下篇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았다. 때문에 일연이 曹溪의 小融和尚을 만나 의기투합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老謙本을 검열하여 거기에 배열을 변경하고 생략하면서 새롭게 후세의 오위설을 가미하였다.²⁾

일연은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중편조동오위』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확정하고 있다. 『보경삼매』에 대한 작자의 문제, 「逐位頌」에 대한 작자의 문제, 오위에서 第四位 명칭을 무엇으로 확정하느냐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일연의 견해는 원시조동종의 오위에 근거하여 동산과 조산의 오위에 대한 제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한 것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대목에 대하여 일연은 「洞山五位顯訣」의 경우는 네 군데, 또한 「天童四借頌」의 경우는 네 군데, 曹山の 「逐位頌」의 경우는 세 군데, 「元眞長老揀」의 경우는 한 군데, 「寶鏡論」의 경우는 두 군데, 「洞山三句」의 경우는 세 군데, 「定齋閑居士曹洞贊」의 경우는 한 군데 등 총 18회에 걸쳐서 자신의 견해를 [補曰] 혹은 [補云]이라는 형태로 가미하여 주석을 가하였다.

1. 「寶鏡三昧」 및 「五位顯訣」의 작자

일연은 『寶鏡三昧』 · 『五位頌』 · 『三種滲漏』가 藥山惟儼의 저작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慧洪의 『禪林僧寶傳』의 설³⁾을 반박하며 『보

2) 『重編曹洞五位』 「重編曹洞五位序」, (H6, 216b-217a) 「序」의 서두에 雪峯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晦然이 曹洞五位를 重編하면서 붙인 「序」를 후대에 雪峯이 그대로 필록한 것으로 보인다.

경삼매』·『오위송』·『삼종삼루』가 모두 동산의 저작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寶鏡三昧·五位顯訣⁴⁾·三滲漏 등의 宗旨를 藥山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지라도 文을 짓고 位를 시설하여 총림에 유포한 것은 처음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친하에서 그것을 동산오위라고 부른다. 또한 조산이 친히 법을 이어받아 가문을 이루었는데 (동산과 조산의) 부자가 모두 이것을 동산현결이라고 불렀던 것도 이것을 증명해 준다.⁵⁾

이 가운데서 일연은 『보경삼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약산의 작과 동산의 相乘而述이라는 표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文을 짓고 서술했다는 점에서 동산을 그 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일연의 이와 같은 견해는 후대 行策의 『보경삼매본의』에서도 “보경삼매는 동산이 친히 운암으로부터 인가받아 은밀히 조산에게 준 것이다.”⁶⁾고 하여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또한 『오위현결』에 대해서 일연은 자신의 [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善卿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개선사가 처음에는 新豊에 주석하였으나 후에 동산으로 옮겨 그 도를 크게 일으키고 편정오위를 내세웠는데 당시에 처음으로 주창한 것이다. 지금도 동산현결이라 불리는데, 오위의 시설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친하의 통론이다.’⁷⁾

- 3) 『禪林僧寶傳』 卷1, (X79, 492b) “先雲巖所付寶鏡三昧。五位顯訣(五位頌)。三種滲漏畢”
- 4) 여기에서 말하는 五位顯訣은 五位頌이다. 柳田聖山, 『唐代の禪宗』 2004. p.117.
- 5)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8b-c) “寶鏡顯訣三漏之旨。雖皆稟於藥嶠。至於着文設位流布叢林。則創自洞山。故天下稱洞山五位。又親承克家曹山父子皆云洞山顯訣。此爲明證”
- 6) 『寶鏡三昧本義』, (X63, p.216b) “寶鏡三昧者。洞山親印於雲巖 而密授曹山者也”
- 7)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8b) “善卿云。价初住新豊。晚遷洞山。大駕其道。立偏正五位。爲當時首唱。今此亦云洞山顯訣。則五位之設始自洞山。是

이로써 일연은 이전에 운암담성의 경우에 『보경삼매』 가운데서 『오위현결』의 원류가 되는 ‘重離六爻 偏正回互 疊而爲三 變盡成五’의 원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여 세상에 유포되는 것을 꺼렸지만, 동산대사가 문을 활짝 열어서 거기에 名을 세우고 位를 정하여 그것을 시설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경삼매』와 『오위현결』의 실질적인 작자를 동산으로 확정한다.

2. 「逐位頌」 작자의 문제

「逐位頌」의 작자가 동산양개인가 조산본적인가에 대하여 일연은 조산임을 주장한다. 일찍이 「축위송」의 작자를 동산양개로 보는 입장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오위에 대하여 頌으로 주석을 가한 2권본 『조산록』의 「註釋洞山五位頌」에서 그 제목이 「洞山五位頌」이라 보여주고 있듯이 頌의 작자를 동산양개로 간주하고 있다.⁸⁾ 둘째, 『林間錄』에서 無盡居士의 질문에 답하는 대목⁹⁾ 및 기타에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일연은 [補]를 통해서 曹山慧霞(霞公白眉)의 「序文」 ‘조산대사는 동산양개의 嫡嗣로서 오위를 설명하려고 계송으로 五篇을 송했다.’는 대목을 근거로 하여 “曹山父子(조산본적과 조산혜하)는 동산의 가풍을 전승한 후예로서 동산의 旨訣을 상송하였다. 그런 즉 이것은 先曹山이 지은 것임에 틀림없다.”¹⁰⁾고 말한다.

또한 “조산대사는 새로 입실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진리에 통달

天下之通論也”

8) 『撫州曹山本寂禪師語錄』 卷下, (T47, 542b) “註釋洞山五位頌”

9) 『林間錄』 卷下, (X87, 269c) “無盡居士嘗問予曰。悟本大師作五位君臣偈。... 予曰。舊本曰。...”

10) 『重編曹洞五位』 卷中, (H6, 229a-b) “故其序亦云 曹山大師新豐嫡嗣。將明五位 頌出五篇。輝序亦云。制頌排章 若獲神珠出海(云云)。且曹山父子是傳家兒孫。自有相承旨訣。則是先曹山之作必矣”

하였고, 또한 明師를 만나서 친히 그 文을 받고 은밀히 宗旨를 전해 받았다. 스승의 道를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學徒에게 내보였다. 그러자 上智之人은 한 구절만 내보여도 쉽게 깨닫지만, 中庸之士는 세 번을 반복해 보여주어도 해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頌을 짓고 章을 늘어놓은 것이다.”¹¹⁾는 光輝의 「序文」을 인용하여 五位頌을 지은 사람이 조산본적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들 주장을 통해서 보면 우선 「축위송」의 작자에 대해 그것이 조산본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축위송」의 내용적인 측면만의 주장이 아니라 그 속에 사용되고 있는 「先曹山本寂禪師의 逐位頌과 註와 別揀」¹²⁾이라는 제목에도 나타나 있다. 일연이 조산의 「축위송」에 근거하여 조산의 [揀]을 비롯하여 거기에는 다시 光輝의 「釋」을 실고, 또한 자신의 [補]를 붙여 설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후 일연의 주장을 이어서 「축위송」의 曹山說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본으로 전래되어 傑堂과 南英謙宗의 師資에 의한 『攬揆』¹³⁾ 및 南英謙宗의 『正偏五位圖說詰難』¹⁴⁾ 등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3. 第四位の 명칭 문제

일연은 또한 「축위송」 가운데 第四位에 대하여 偏中至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한다. 그 까닭은 동산과 조산의 오위를 원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동산의 「五位顯訣」에서는 제사위에 대하여

11)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7c) “次有曹山大師者。新室之人也。早通真理。復遇明師。親授其文密傳其旨 不欲墜於師道。見示學徒。上智之人一隅易曉。中庸之士三復難明。於是制頌排章若獲神珠出海”

12) 『重編曹洞五位』 卷中, (H6, 229a) “先曹山本寂禪師逐位頌”

13) 『曹洞全書』 「註解」5, 133-249.

14) 『曹洞全書』 「註解」5, 251-279.

偏位中來라 말한다. 이 偏位中來는 조산이 정립한 용어로는 偏中至가 되기 때문이다. 이 편중지는 偏位の 일방적인 입장으로서는 正中來가 正位の 일방적인 입장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산에 의하면 편중지는 현실적인 제현상을 통하여 진리의 절대경지에 이르는 명제이다. 그래서 정중래가 正과 偏의 不回互로서 正을 正의 측면으로만 窮究한 것이라면 편중지는 正과 偏의 不回互로서 偏을 偏의 측면으로만 窮究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有爲現象 속에서 無爲의 眞諦를 실현하므로 有語中無語라고 말한 것이다.¹⁵⁾

일연이 또 한 가지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중편조동오위』의 冒頭に 기록되어 있는 慧霞의 「序」에서 “조산대사는 신풍의 嫡嗣로서 장차 오위를 설명하려고 五篇을 頌出하였다”¹⁶⁾라는 것과, 또한 광휘의 「序」에서 “頌을 짓고 章을 배열했다”¹⁷⁾는 대목이다.

기타 일연은 위의 세 가지 이외에도 편정오위설에 대하여 기존의 雲巖說에 대하여 曹山慧霞의 「序」에서 “동산대사의 嫡嗣인 조산본적에 이르러서 장차 오위를 밝히기 위하여 오편을 송출하고 아울러 일례의 言을 들어 五門의 旨를 드러내었다. 첫째는 正位로서 主이다. 둘째는 偏位로서 賓이다. 셋째는 正中却偏으로서 이렇게 와서 位를 드러낸다. 넷째는 偏位却正으로서 이렇게 가서 宗을 밝힌다. 다섯째는 相兼帶來로서 有無에 걸림이 없고, 賓主를 문득 잊으며, 偏도 아니고 正도 아니며, 至妙하고 至玄하며, 혹 그 자리에서 오는 것이니 어찌 語默을 따를 것이며, 혹 正面으로 가니 어찌 言詮에 있으랴.”¹⁸⁾고 주장한다.

15)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22a) “又揀云。語從四大聲色中來。不立處所是非。故云緣中辨得是偏位中來也。引語例者。云如什麼物怎麼來。亦云光境俱忘復是何物。亦云定慧等學明見佛性。此例亦多。喚作有語中無語” 참조.

16)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7a) “泊曹山大師乃新豐嫡嗣。將明五位。頌出五篇”

17)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7c) “於是制頌排章”

18) 『重編曹洞五位』 卷上 「洞山五位顯訣并先曹山揀出語要序」, (H6, 217a-b) “泊曹山大師乃新豐嫡嗣。將明五位。頌出五篇。兼舉一例之言。以顯五門之旨。一者正位爲之主。二者偏位爲之賓。三者正中却偏是怎麼來而顯位。四者

또한 광휘의 「序」에서는 “편정오위는 동산대사가 지은 것이다. 대사는 법계의 醫王이며 宗門의 化主로서 무릇 一言一句가 다 골수에 사무치고 정신에 사무친다. 간략히 방편의 문을 열어 이에 偏正의 位를 만들었으니, 그 말은 간략하나 이치는 깊어 하늘도 높지 않고 바다도 넓지 않다.”¹⁹⁾고 말한다.

나아가서 『오위현결』에 대한 조산의 [揀]에서 “先師(洞山)는 偏正과 兼帶 등을 해명하였다.”²⁰⁾ 등을 수용하여 분명하게 편정오위는 동산대사께서 지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일연의 주장은 한결같이 『보경삼매』 및 『오위현결』의 작자가 동산임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III. 雲淙淨訥의 『寶鏡三昧原宗辨謬說』

1. 『寶鏡三昧原宗辨謬說』의 내용

雲淙淨訥²¹⁾은 『寶鏡三昧原宗辨謬說』을 통해서 『보경삼매』에 대

偏位却正是怎麼去以明宗。五者相兼帶來不涉有無頓亡賓主。不偏不正至妙至玄 或當頭而來。寧從語默。或正面而去。豈在言詮”

19) 『重編曹洞五位』 卷上 「重集洞山偏正五位曹山揀語并序」, (H6, 217b-c) “偏正五位者。洞山大師之所作也。大師法界醫王。宗門化生。凡有一言一句皆爲入髓入神。略開方便之門。爰制偏正之位。其言約其理深。天不高。海不濶”

20) 『重編曹洞五位』 卷上, (H6, 219a) “夫先師所明偏正與兼帶等”

21) 『五燈全書』 卷115, (X82, 698b-699a) ; 『正源略集』 卷7, (X85, 43b-c) 淨訥(1610-1673)은 조동종의 선사로서 청원행사의 제38세이다. 호는 且拙이고 雲淙이라고도 불렸다. 호남성 衡州 安仁 출신으로 속성은 王씨이다. 26세 때 출가하여, 남악의 荊紫峰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강서성 贛州 崆峒山 瑞白明雪에게 참문하여 언하에 契悟하고 인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호남성 형주 宜陽으로 돌아가 大義山에서 개법하였다. 후에 弁山에서 주지를 하고, 강희 12년(1673) 4월 23일에 시적하였다. 세수 64세이고, 弁山

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당시까지 전승된 견해 가운데 몇 사람에게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정눌은 『원종변류설』의 전반부에서는 『보경삼매』의 사구인 ‘如離六爻 偏正回互 疊而爲三 變盡成五’의 구절에 대하여 重離는 비유로서 六爻를 三疊에 분배하여 그 象으로써 三德을 삼았고, 다시 六爻를 五變에 분배하여 그 象으로써 오위를 삼았다. 여기에서 不動의 本卦는 三과 五의 體와 用이 回互하지만 각각의 位는 本自天然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보경삼매』의 사구에 근거하여 후반부에서는 ‘重離六爻 偏正回互’의 구절에 근거하여 동산이 편정오위를 내세웠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운암이 제시한 ‘중리의 여섯 효는 편과 정이 회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離爻[☲]의 모습을 홀[奇]과 짝[偶]으로 單取하여 오위가 회호함을 해명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편과 정이 공경하고 삼가면[錯然] 즉 길하여 범접할 수가 없다. 錯然이라는 두 글자는 곧 홀과 짝을 가리켜 한 말임을 알 수가 있다. 만약에 오위가 각각 本位에만 머물러 있다면 곧 觸과 背에 막혀버려서 범접하는 허물이 되고 만다. 그런즉 이것이 홀과 짝을 취한 것이지 괘의 뜻으로 취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²²⁾

그리고 동산은 다시 편정오위의 원리에 근거하여 功勳五位를 내세웠다.

둘째로 동산양개 조사는 정과 편에 근거를 두고서, 다시 오위공훈을 건립하였다. 무릇 학인이 정과 편에 집착할 것을 염려하여 마침내 견해로써 다리를 삼아서는 도과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각 位마다 공훈을 건립함으로써 오위를 닦아가는[進修] 深淺의 뜻을 설명하였

에 답을 건립하였다. 黎元寬이 선사의 탐명을 찬술하였다. 저술에 『寶鏡三昧原宗辨謬說』 1권이 있다.

22) 『寶鏡三昧原宗辨謬說』(X63, 222c) “第一雲巖如離六爻偏正回互者。所謂錯然則吉。不可犯忤。觀錯然二字。則知指奇偶爲言。若各居本位。則滯在觸背。乃犯忤之過也。卽此可知。是取奇偶。非取卦義。明矣”

다.²³⁾

그리고 조산은 공훈에 근거하여 君臣五位를 내세웠다.

셋째로 조산본적 조사도 또한 공훈오위에 근거를 두고서 오위군신을 내세웠다. 오위군신은 정편오위의 尊 · 卑 · 主 · 伴의 덕상을 설명한 것이다.²⁴⁾

그리고 石霜은 편정오위과 공훈오위와 군신오위에 근거하여 王子五位를 내세웠음을 해명하였다.

넷째로 石霜慶諸 조사도 또한 정편오위 · 군신오위 · 공훈오위의 편제에 근거를 두고서 오위왕자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이 오위왕자는 앞의 세 가지 경우와는 달리 오위의 權智와 實智의 차별만을 설명한 것이다. 이 오위왕자를 모두 발생의 측면을 중심으로 말한 경우에는 권지와 실지의 발생을 드러낸 것이고, 오위왕자를 모두 군왕의 측면을 중심으로 말한 경우에는 尊과 卑가 자재한 뜻을 드러낸 것이며, 오위왕자를 모두 왕자의 측면을 중심으로 말한 경우에는 지혜의 종자가 자식으로 이어졌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²⁵⁾

그러나 이와 같은 重離의 비유와 四種의 五位에 대한 물이해의 대표적인 예로써 慧洪의 卦義와 內紹 · 外紹의 王種의 義, 大慧의 宰相 · 將軍 · 庶民의 子 및 黑處說白 · 白處說黑 등을 언급한다.

이쯤 이르고 보면 석문의 각범혜홍이 찬술한 巽 · 兌 · 中孚 · 大過

23) 『寶鏡三昧原宗辨謬說』(X63, 223b) “第二洞山价祖。根正偏。復建五位功勳者。蓋恐學人坐著正偏。遂以乾慧爲足。則道果難臻”

24) 『寶鏡三昧原宗辨謬說』(X63, 223b) “第三曹山寂祖。又根功勳。而立五位君臣者。此明正偏五位尊卑主伴之德相也”

25) 『寶鏡三昧原宗辨謬說』(X63, 223c-b) “第四石霜諸祖。又根正偏功勳君臣之制。而立五位王者。此單明五位權實二智之差別也。五位皆以生爲言者。顯二智之發生也。五位皆以王爲言者。顯尊卑自在之義也。五位皆以子爲言者”

로 나타나는 掛義, 內紹·外紹인 王種의 義, 대혜가 주석을 붙인 것으로 宰相·將軍·庶民의 子에 대하여 흑처에서 백을 설하고 백처에서 흑을 설하여 회호한다는 뜻으로 간주하는 것 등은 어찌 터무니없는 잘못이 아니겠는가.²⁶⁾

이처럼 정눌은 이전에 전승되어 오던 다양한 오위의 사상에 대하여 점검하고 임제종에서 전승되어 온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그것이 오류라고 비판하고 있다.

2. 정눌의 관점

이 가운데서 『보경삼매』의 구절과 오위의 전개에 대하여 정눌이 주장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간추려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암의 보경삼매는 章으로 26句(節)로 건립되었는데, 널리 大法을 들어서 案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文으로써 義를 헤치는 것을 念慮한 까닭에 嬰兒의 비유를 가지고 증명을 삼았다.”고 하여 『보경삼매』를 운암의 저술로 간주한다.²⁷⁾ 여기에서 정눌은 『보경삼매』에서 운암은 오직 重離의 한 과만을 취하여 비유로 들었을 뿐 그밖에는 모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첩은 세 가지 경우고 변은 다섯 경우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중리괘는 오위가 회호하는 妙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疊而爲三 變盡成五’는 法數이지 卦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괘의 음과 양의 두 가지 효에 의거하여 편과 정이 회호하는 도리를 설명한 것인데, 세 가지 첩으로써 삼덕을 비유한

26)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4a) “至此則知石門所撰。巽兌中學大過之卦義。內紹外紹之王種義。大慧所註。宰相將軍庶民之子。黑處說白。白處說黑。回互之義。豈不大相刺謬也哉”

27)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2a) “雲巖寶鏡三昧。建章二十六句。廣舉大法爲案。恐人以文害義。故引嬰兒喻作證”

것이고, 다섯 가지 변은 오위를 비유한 것이다. 五의 근본은 이고 三의 근본은 이이다”²⁸⁾고 말한다. 이에 三疊은 三德을 비유하고 成五는 오위를 비유한 것인데 모두 一心(如是)이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운암의 중리괘에 의거하여 동산이 편정오위를 건립하였다.²⁹⁾ 이로써 마침내 先德[동산]은 이 오위에 준하여 규식을 삼아서 이에 오위편정을 건립한 것이라고 말한다.

넷째, 正中偏 · 偏中正 · 正中來 · 兼中至 · 兼中到는 동산이 건립한 것이다.³⁰⁾ 그럼으로써 오위군신 · 오위공훈 · 오위왕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 근원은 동산의 오위에 근거하여 건립된 것인데, 명칭은 다르지만 체는 동일하다고 말한다. 이에 “정편오위는 또한 화엄의 주 · 행 · 회향 · 지 · 등각 · 묘각을 가지고 종지로 삼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주 · 행 · 회향 · 지의 네 가지에 그치지 않고, 주 · 행 · 회향 · 지 · 등각 · 묘각의 여섯 가지에 이르렀겠는가. 이로써 先德[동산]은 이 오위에 준하여 규식을 삼아서 이에 오위편정을 건립한 것이다.”고 하여 五를 들면 곧 일체의 차별이 모두 남김없이 섭수된다는 원리로 설명을 가한다.³¹⁾

다섯째, 동산은 자신이 형성한 정편오위의 편제에 근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五位功勳을 건립하였다.³²⁾ 정중편에다 向位를 배대한 것은 염념에 根本不動智佛을 趨向하여 그 正을 터득하는 것으로서 곧 초위를 이해하여 趨向하는 것으로써 공훈을 삼는다. 편

28)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2a) “所云三疊五變。是法數。非卦數。是藉卦之陰陽二爻。以明偏正回互之義。以疊三喻三德。變五喻五位。五本乎三。三本乎一”

29)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3a) “是知先德准此五位為式。乃建立五位正偏”

30)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2a) “何謂五位。曰正中偏。偏中正。正中來。兼中至。兼中到。此洞山之建立也”

31)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3a) “卽如正偏五位。亦是乘華嚴住行向地等妙為宗。不然。何不停四至六。是知先德准此五位為式。乃建立五位正偏”

32)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3b) “洞山价祖。根正偏。復建五位功勳者”

중정애다 奉位를 배대한 것은 52위의 계급에서 염념에 佛果를 奉重하는 것을 중지로 삼아서 불과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奉重으로써 공훈을 삼는다. 정중래애다 功位를 배대한 것은 52위 계급에서 修와 證의 공이 남아있는 경지를 초월하여 수증이 남아있지 않는 묘각의 果에 이르기 때문에 오직 大功으로써만 공훈을 삼는다. 겸중지애다 共功을 배대한 것은 깨친 이후의 보현행으로 이에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攝化하여 반드시 道交를 감응시켜서 마야호로 受化를 감당하게끔 한다. 그래서 賓과 主가 交光하고 眞과 俗이 일치하는 것이다. 때문에 共功으로써 공훈을 삼는다. 겸중도에다 功功을 배대한 것은 앞의 四位는 모두 유위 내지 무위의 道로서 자리와 이타의 차원에 속한 까닭에 심·불·중생의 관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이 겸중도에다 붙인 功功은 이에 心·佛·衆生이 모두 실체에 돌아가는 경지로서 智로써 智를 초월하여 여여에 계합되는 까닭에 功功이라고 말한다.

여섯째, 조산은 동산의 공훈오위에 근거하여 오위군신을 건립하였다.³³⁾ 조산이 거기에서 내세운 오위는 다음과 같다. 정중편애다 붙인 君視臣은 본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덕상을 비유한 것이다. 편중정애다 붙인 臣奉君은 작용을 섭수하여 본체로 돌아가는 덕상을 비유한 것이다. 정중래애다 붙인 君位居中은 인과 과거 일여하고 이와 사가 호응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겸중지애다 붙인 臣位는 깨친 이후의 보현보살의 대행이야말로 순수한 이타야말로 군생에 冥應한 덕상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겸중도에다 붙인 君臣道合은 범부와 성인이라는 분별이 모두 사라져서 화엄의 육상 가운데 壞相에 온전하게 부합됨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곱째, 石霜은 기존의 정편오위·군신오위·공훈오위의 편제에 근거하여 五位王子를 建立하였다.³⁴⁾ 석상이 거기에서 내세운 오위는 다음과 같다. 초위에다 誕生王子를 배대한 것은 근본무명에 즉해 있지만 不動智를 성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부동지는

33)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3b) “曹山寂祖。又根功勳”

34)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3c) “石霜諸祖。又根正偏功勳君臣之制”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에야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곧 根本智이다. 때문에 탄생에 비유한 것이다.

제이위에다 朝生王子를 배대한 것은 眞際로부터 대공훈을 일으켜서 구계의 무명을 타파하고 십바라밀의 대행을 일으켜서 이미 유위에 이르러 있는 까닭에 곧 差別智이다.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난[朝生] 것에 비유한 것이다. 앞의 탄생위는 한 밤중이지만 매우 밝은 상태[夜半正明]이지만 이 조생위는 새벽이지만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호라고 말한다.

제삼위에다 末生王子를 배대한 것은 功位가 이미 충만되어 補處位에 즉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지는 최후의 일생으로 곧 팔상생도에 즉한 것으로 後得智이므로 말생에 비유한 것이다.

제사위에다 化生王子를 배대한 것은 깨친 이후의 보현행으로서 이에 온갖 근기의 種智에 계합되어 그 변화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화생이라 말한다.

제오위에다 內生王子를 배대한 것은 앞의 四位를 섭수하여 모두 법계에 이르렀지만 법계라는 생각이 소멸되고 더불어 실제의 경지에 돌아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진법계의 대적멸인으로서 生에 있으면서도 不生이다. 그래서 진여의 내생에 비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덟째, 이로써 사중오위는 모두 운암의 중리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다르지만 본체는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놀은 각 位의 명칭이 移置되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功勳五位：向·奉·功·共功·功功 → 功·共功·向·奉·功功

君臣五位：君示臣·臣奉君·君位·臣位·君臣道合 → 君位·臣位·君示臣·臣奉君·君臣道合

王子五位：誕生·朝生·末生·化生·內生 → 末生·化生·誕生·朝生·內生

偏正五位：正中偏·偏中正·正中來·兼中至·兼中到 → 正中來·兼中至·正中偏·偏中正·兼中到³⁵⁾

이들 사종의 오위에 대한 배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곧 기존의 제삼위와 제사위의 순서를 제일위와 제이위의 앞에 먼저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제일위와 제이위의 순서가 각각 제삼위와 제사위의 순서로 바뀌고, 제오위의 순서는 그대로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기존의 오위에서 제삼위에 해당하는 정중래를 제일위에 배치한 것은 정눌의 오위관이 어디까지나 정중래를 중심으로 하는 오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정중래 중심의 구조는 기존에 주장되어 오던 정중래 중심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제시되었다.

그 까닭은 정눌의 정중래 중심설의 경우에 제일 먼저 정중래를 제시하여 전체의 근본으로 삼고, 이하에서 제이위와 제오위인 검중지와 검중도를 대구로 삼고, 제삼위와 제사위인 정중편과 편중정을 대구로 삼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중래 중심설이란 가운데 곧 제삼위에 정중래를 배치하고, 제일위와 제이위에 해당하는 정중편과 정중편이 대꾸를 형성하고, 제사위와 제오위에 해당하는 검중지와 검중도가 대구를 형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혜홍이 『지증전』에서 巽 · 兌 · 中孚 · 大過로 나타난 掛義³⁶⁾ 및 석상경제의 五位王子에 대한 後人의 說³⁷⁾을 “이에 이르러서 곧 석문 곧 각범혜홍이 찬술한 지증전에서 주장한 내용은 巽 · 兌 · 中孚 · 大過로 나타나는 掛義, 그리고 內紹 · 外紹인 王種의 뜻이 됨을 알 수가 있다”고 비판한다.³⁸⁾ 또한 대혜가 『正法眼藏』

35)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4a) “如謂正中之君位。可移置於初位。第四臣位。可移置於二位。第一君視臣。可移置於第三位。第二臣奉君。可移置於第四位。將復謂雲巖正位之正中來。洞山正位之功臣。石霜正位之末生王子。皆可移在初位乎。三種正位。斷不可移。則知三家先後各二位。皆不可移。明矣”

36) 『智證傳』, (X63, 194a-b)

37) 『人天眼目』 卷3, 「寂音說王種內紹外紹」(T48, 317c)

38)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4a) “至此則知石門所撰。巽兌中孚大過之卦義。內紹外紹之王種義”

에서 붙인 黑白의 설명에 대하여 “대혜가 주석을 붙인 宰相 · 將軍 · 庶民의 子 등을 가지고 흑처에서 백을 설하고 백처에서 흑을 설하여 회호하는 뜻이다”고 비판한다.³⁹⁾

여기에서 정눌이 주장하고 있는 이들 아홉 가지의 내용은 소위 조동종에서 창출한 오위이면서 당시에 임제종까지 확대되어 전승되고 있는 선종의 오위에 대한 수용 내지 긍정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점은 고려의 일연이 『중편조동오위』에서 철저히 원시조동종의 입장을 수용 내지 긍정하고 있는 것과 분명하게 대치되는 내용들이다.

IV. 결론

일연과 정눌의 오위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우선 편정오위는 동산양개의 悟證의 내용으로 서술된 것으로서 본증의 측면이고, 공훈오위는 그것을 체득하는 납자의 수행이 진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선행적으로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편정오위란 단순한 證의 이론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선기 그 자체의 존재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공훈 및 修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未到性을 엄격하게 판별하고 이해해가면서 진실한 견대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훈오위란 통상적으로 말하듯이 편정오위가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수행의 계제가 아니라 오히려 有病兼帶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편정오위 속에서 眞義의 相兼帶來에 이르러야 할

39) 『寶鏡三昧原宗辨謬說』, (X63, 224a) “大慧所註。宰相將軍庶民之子。黑處說白。白處說黑。回互之義”

수행자의 경지가 진전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훈의 날날 位가 그대로 異義의 位에다 뽑아서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공훈오위가 전체로서 階漸의 형식을 취하면서 도달하는 곳마다 조동종 사상의 특징이기도 한 刮骨 · 綿密 · 沒蹤迹 · 傍提의 究極의 宗義에 대하여 접촉되어 있는 것은 위의 특질에 의거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연이 이와 같은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전승되어 오던 상황에서 『중편조동오위』를 통해서 보여준 오위관은 원시조동종의 입장을 정통으로 간주하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가령 일연은 편정오위에 대하여 中宗도 중심설을 주장한다. 그런 까닭에 제사위의 명칭을 편중지로 확정하여 제일위와 제이위인 정중편과 편중정이 대구를 형성하고, 제삼위와 제사위인 정중래와 편중지가 대구를 형성하며, 제오위의 中宗도가 이들을 모두 包容하고 兼受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연이 주장한 근거가 주로 慧霞의 「序」와 廣輝의 「序」 그리고 일연 자신의 「序」와 [補]였다는 제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 일연이 살고 있던 당시에 고려가 처해 있던 혼란한 국가의 상황에서 과거 정통성의 회복과 주체성의 강조를 위한 노력의 흔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주체성의 발로라는 의도에도 통한다.

반면 정눌의 『보경삼매원종변류설』은 대체적으로 송대 이후에 원시조동종의 변용된 교의를 비롯하여 임제종까지 파급되어 전승된 오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가령 편정오위에 대하여 기존의 정중래 중심설을 정눌 자신이 변형시켜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나아가서 각범혜흥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연과 정눌이 비판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는 혜흥이 보경삼매의 작자를 약산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일연은 동산으로 본다. 혜흥이 五位가 重離의 一卦에 갖추어져 있는데 오위를 重離 · 巽 · 兌 · 中孚 · 大過의 五卦에 배대한 것에

대하여 정눌은 오위가 一卦에 갖추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혜홍이 제사위의 명칭을 편중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일연은 수용하고 정눌은 겸중지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오위관에 대한 일연의 견해가 일연과 정눌 사이에는 고려시대와 명대 끝 시대적으로 약 400여 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와 중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및 지역적인 특수성보다는 조동오위를 수용하고 전승하려는 개인적인 자세와 그에 의거한 주장이 크게 작용했음을 볼 수가 있다.

참고문헌

- 『重編曹洞五位』, 韓國佛教全書6
- 『禪林僧寶傳』, 卍新續藏79
- 『寶鏡三昧本義』, 卍新續藏63
- 『撫州曹山本寂禪師語錄』, 大正新脩大藏經47
- 『五燈全書』, 卍新續藏82
- 『正源略集』, 卍新續藏85
- 『寶鏡三昧原宗辨謬說』, 卍新續藏63
- 『智證傳』, 卍新續藏63
- 『人天眼目』, 大正新脩大藏經48
- 『正法眼藏』, 卍新續藏67
- 『不能語五位說』, 『曹洞宗全書』 「註解」5
- 『洞山悟本大師五位小說』, 『曹洞宗全書』 「註解」5
- 『功勳五位傍提』, 『曹洞宗全書』 「註解」5
- 『五位顯訣元字脚』, 『曹洞宗全書』 「註解」5
- 『參同契吹唱』, 『續曹洞宗全書』 「註解」2
- 『寶鏡三昧吹唱』, 『續曹洞宗全書』 「註解」2
- 『參同契寶鏡三昧書紳稿』, 『續曹洞宗全書』 「註解」2
- 柳田聖山, 『唐代の禪宗』 東京 : 大東出版社. 2004.
- 김호귀(2000), 「重編曹洞五位小考」, 백련불교논집 10.
성철선사상연구원
- 민영규(1984), 「一然의 重編曹洞五位重印序」 『학림』 6.
연세대학교사학연구회
- 한종만(1997), 「一然 曹洞五位研究」 한국불교학 23, 한국불교학회

Abstract

A view of confrontation about CaoDongWuWei by Ilyeon & JingNe

Kim, Ho Gui
Academy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The CaoDongWuWei(曹洞五位) is fundamental principle of CaoDong-sect. The the origin of doctrines are CanTongQi(參同契) of ShiTou(石頭) and WuWeiXianJue(五位顯訣) of DongShan(洞山). The foundation was based on HuiHu(principles of Circulation 回互) and BuHuiHu(principles of No-Circulation 不回互).

The fixed form about PianZhongWuWei(偏正五位) was made of terminology and verse by CaoShan(曹山), who is disciple of DongShan.

But the CaoDongWuWei of DongShan, namely, PianZhongWuWei (actuality-principle five positions 偏正五位) has changed gradually. First is the auther of BaoJingSanMei(寶鏡三昧) and WuWeiXianJue(五位顯訣). Second is the auther of verse that DongShan or CaoShan which appended the PianZhong-WuWei. Third is the terminology of the fourth - PianZhongZhi which means the Pure Actuality Principle(偏中至) or the JianZhongZhi which means the Pure Actuality Principle(兼中至) -.

But in Goryeo dynasty zen master BoGakIlyeon(普覺一然 : 1206-1289) made a definite decision that three points of dispute through the JungPyeon-Jodongowi(重編曹洞五位). First, the auther of BaoJingSanMei and WuWeiXianJue is DongShan. Second, the auther of verse is CaoShan. Third,

the terminology of the fourth is PianZhongZhi(偏中至)

On the one hand, in Ming(明) dynasty zen master YunCongJingNe(雲淙淨訥 : 1610-1673) insisted that the terminology of the fourth is JianZhongZhi(兼中至). And if we are to speak about it at all, JingNe insisted on nine items through the BaoJingSanMeiYuanZongBianMiuShuo(寶鏡三味原宗辨謬說).

JingNe's opinions are disagree with Ilyeon in many aspects. But these divergence of views are from the understand of the nation's times and personal's inclination. JingNe's view points is well acquainted with current affairs, and Ilyeon's view points is carry through his faith for CaoDong sect.

Key Words :

CaoDongWuWei, BaoJingSanMei, JungPyeon-Jodongowi,
BaoJingSanMeiYuanZongBianMiuShuo